



#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을 모시어

공화국인민의 반제투쟁력사는 절세위인들을 높이 모시어 가장 강고한 조건에서 가장 빛나는 승리의 전통을 창조하고 대를 이어 계승하여 영광스러운 역사이다. 이 성스러운 로정에서 특출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령도 밑에 공화국이 조국해방전쟁에서 력사상 처음으로 미제국주의를 타승하는 군사적적적을 이룩한것이다.

일제의 식민지기반에서 갖 해방된 조선인민들을 높이 모시어 청순한 공화국에 있어서 미국이 강요한 지난 조선전쟁은 실로 너무도 힘에 겨운 전쟁이었으며 나라와 인민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사생결단의 싸움이었다.

당시 미국은 조선전선에 현대기술장비로 무장한 자기나라 특군의 3분의 1과 공군의 5분의 1, 태평양함대의 대부분 그리고 15개의 추종국가군대와 남조선군 및 구일본군잔당들을 포함하여 무려 200여만의 대병력을 동원하였고 수많은 군사비와 군수물자를 들이밀었으며 세계전쟁사에서 일찌기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가장 야만적인 군사작전과 전쟁방법을 다 적용하였다.

하지만 그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써도 영웅적조선인민을 굴복시킬수 없었으며 전쟁사상 가장 비참한 패배를 면치 못하였다.

공화국이 3년간의 조국해방전쟁에서 미국을 타승하고 위대한 전승신화를 창조할수

있을 결정적요인은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령도를 받았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조국앞에 준엄한 시련이 닥쳐왔던 시기에 력사적인 방송연설을 하시고 전체 인민을 원수미제와의 판가리결전으로 불려일으키시었다.

그리고 갠도전, 비행기사냥군운동, 땅크사냥군운동, 저격수조활동, 독립중기조활동, 적후파괴조활동 등 세계전쟁사가 알지 못하는 독창적인 전법들을 창조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전법들은 나라의 지형조건과 인민군대의 무장장비, 현대전의 특성에 맞는 과학적인 전법이었으며 수적, 기술적우세에 의존하고있던 침략자들에게 패배를 안기고 전선에서의 승리를 안아온 중요한 요인으로 되었다.

하기에 《전쟁과 미국》이라는 미국도서의 갈피에도 《역사적으로 고찰해 볼 때 미국은 명성높은 장군들을 한 두명 파견하여 전쟁의 승리를 획득하는데 승판되어왔다. 그러나 조선전쟁은 미국의 장군들을 패망시키는 무덤이었다. ...상대면 북조선군총수 김일성장군이 30대의 젊은 장군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으로써도 영웅적조선인민을 굴복시킬수 없었으며 전쟁사상 가장 비참한 패배를 면치 못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은 군사적지략에서만이 아니라 담력과 배짱, 신념과 의지에서

최고이신 회세의 전설적명장이시었다.

전선의 병사들이 대학으로 소환되어 총을 펜으로 바꾸어 쥐는 현실이 펼쳐지고 과학원이 창설되었으며 무상치로제를 실시할데 대한 내각결정이 채택되는 등 전설같은 일들이 생겨날수 있는것은 수령님의 인민사랑의 세계, 전쟁승리에 대한 확신과 락관을 떠나 생각할수 없는것이였다.

전쟁이 한창이던 주제 40(1951)년 1월 어느날 파괴된 평양시내를 부강하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동행한 일군들에게 지금부터 평양시를 일떠세울 준비를 잘해야 하겠다고, 우리는 이 재더미를 밀어버리고 새로운 평양,

현대적이고 아름다운 대도시를 일떠세워야 한다고 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아마 우리가 전후복구건설을 설계한다는것을 전선동무들과 인민들이 알면 큰 힘이 될것이라고, 반대로 미국놈들이 이것을 알면 기겁을 하고 나가자 빠질것이라고 하시며 호탕하게 웃으시었다.

전후복구건설의 휘황한 설계도, 그것은 미제가 100년이 걸려도 다시 일떠서지 못한다면 전후의 공화국이 패배를 헤치고 짧은 기간에 복구건설을 끝내게 한 요인으로 되였다.

전화의 나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견고결심한 화신철리길은 인민에 대한 사랑

페에 대하여 가능할수 없었던 엄혹한 시기에 휘황한 조국건설계획과 그 준비사업이 추진된것은 승리할 래일에 대한 확신과 미래에 대한 락관, 자기 인민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사랑을 지닌 위인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엄두도 낼수 없는 대우단이었다.

전후복구건설의 휘황한 설계도, 그것은 미제가 100년이 걸려도 다시 일떠서지 못한다면 전후의 공화국이 패배를 헤치고 짧은 기간에 복구건설을 끝내게 한 요인으로 되였다.

전화의 나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견고결심한 화신철리길은 인민에 대한 사랑

페에 대하여 가능할수 없었던 엄혹한 시기에 휘황한 조국건설계획과 그 준비사업이 추진된것은 승리할 래일에 대한 확신과 미래에 대한 락관, 자기 인민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사랑을 지닌 위인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엄두도 낼수 없는 대우단이었다.

전후복구건설의 휘황한 설계도, 그것은 미제가 100년이 걸려도 다시 일떠서지 못한다면 전후의 공화국이 패배를 헤치고 짧은 기간에 복구건설을 끝내게 한 요인으로 되였다.

전화의 나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견고결심한 화신철리길은 인민에 대한 사랑

페에 대하여 가능할수 없었던 엄혹한 시기에 휘황한 조국건설계획과 그 준비사업이 추진된것은 승리할 래일에 대한 확신과 미래에 대한 락관, 자기 인민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사랑을 지닌 위인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엄두도 낼수 없는 대우단이었다.

전후복구건설의 휘황한 설계도, 그것은 미제가 100년이 걸려도 다시 일떠서지 못한다면 전후의 공화국이 패배를 헤치고 짧은 기간에 복구건설을 끝내게 한 요인으로 되였다.

전화의 나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견고결심한 화신철리길은 인민에 대한 사랑

페에 대하여 가능할수 없었던 엄혹한 시기에 휘황한 조국건설계획과 그 준비사업이 추진된것은 승리할 래일에 대한 확신과 미래에 대한 락관, 자기 인민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사랑을 지닌 위인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엄두도 낼수 없는 대우단이었다.

전후복구건설의 휘황한 설계도, 그것은 미제가 100년이 걸려도 다시 일떠서지 못한다면 전후의 공화국이 패배를 헤치고 짧은 기간에 복구건설을 끝내게 한 요인으로 되였다.

전화의 나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견고결심한 화신철리길은 인민에 대한 사랑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전 락적인 일시적후퇴를 하던 주제39(1950)년 10월 어느날 최고사령부가 옥전을 떠나 다음날 목적지로 갈 때였다. 평안북도 념변군의 어느한 고개에서 짐을 가득 싣고 북으로 가는 소달구지행렬을 보던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서는 차에서 내리시어 달구지입자인 로인에게 어디서부터 오는가고 물으시었다.

어때때문에 물으시는분이 누구이신지 알수 없었던 로인은 석함한 목소리로 강원도에서 들어온다고 대답을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무척 놀라와하시며 소달구지에 후퇴하는 인민군대의 군수물자를 가득 싣고 험한 먼길을 오는 로인의 수고를 헤아려주시었다. 그러시고는 로인에게 손수 담배를 권하시고 불까지 붙여 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황송하여 어쩔바를 몰라하는 로인에게 이 깊은 밤에 어디로 가는가고 물으시었다.

로인은 북으로 간다고, 군대 동무들과 같이 김일성장군님을 찾아간다고 말씀드리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잠

우리 인민군대가 전쟁에서 이길것같은가고 물으시었다.

로인은 확신에 넘친 목소리로 이기고 말구요, 김일성장군님께서 계시는데 무슨 걱정이겠소, 아끼지요 라고 대답드리었다.

지적을 분간하기 어려운

민군대는 인민을 믿고 당파 인민, 군대가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싸우는 이것이 우리 제도를 지키고 전쟁에서 승리할수 있는 제일 큰 힘이라고, 당파 인민과 군대가 한데 뭉치면 이 세상에 무서울것이 없다고 힘있게

우리 인민의 신념을 꺾기 위해 제놈들이 다 이긴것처럼 떠들어대며 최고사령부에 대해 별 의견을 내지 않았고 있는 준엄한 시기에라도 자기의 수령과 당만을 굳게 믿고 따르는 이러한 인민이 있는한 적들의 그 어떤 발악적인 공격에도 능히 좌절시키고 위대한 총병력의 길을 열어나갈수 있다는 확신을 더욱 굳히시었다고 감회깊이 회억하군 하시었다.

준엄한 전화의 나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어 우리는 이긴다는 불같은 신념을 토로했던 범동농민.

정녕 조국해방전쟁시기 공화국인민과 인민군용사들의 심장속에 맥박친것은 위대한 수령님만을 굳게 믿고 따르던 만민이 승리하며 공화국은 영원히 빛나는 역사의 신비였다.

강 철 민

《...때로는 날아드는 적의 파편에 약기가 부서지고 몸이 찢겼고 때로는 방금전까지 곁에서 노래부르던 배수가 뒤를 따르며 울음을 터뜨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도 굴하지 않고 적의 포화를 짓누르며 승리의 노래소리를 높이 울렸다. 바로 그 길이 내 그토록 갈망하던 배움의 길, 새 조선을 노래하는 음악가가 되려던 꿈을 현실로 앞당기기 위한 길이라고 굳게 믿었기때문이었다.》

이 글은 공화국인민들 누구나 사랑하고 즐겨 부르는 가요 《조선인민군가》, 《나는 알았네》를 비롯한 많은 명곡들을 창작한 의용군출신의 이름난 작곡가의 수기집에 쓰여 있는 한 대목이다.

공화국의 품에 안겨 인생의 참다운 삶을 누린 의용군출신의 로병들속에는 작곡가 라곡만이 아닌 김일성장군관인이며 로력영웅이었던 시인 오영재, 적의 화구를 가슴으로 막고도 기적적으로 살아나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강사, 관장으로 로당의장한 공화국영웅 김성진, 위대한 천리마시대에 천리마작업반운동의 선구자로 이름떨친 진용원, 인민들속에 널리 알려져있는 안영재를 비롯하여 오늘날 력사가 알고 민족이 기억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

돌이켜보면 그러할 거릴처럼 했던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오로지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 이끄시는 공화국이야말로 운명도 미래도 말걸 참다운 조국이라는 절대불변의 신념을 간직하고 의용군입대를 탄원해나신 남조선청년들의 예극열로 이 땅은 얼마나 뜨겁게 달아올랐던가.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1950년 7월 5일부 《로동신문》은 《해방된 공화국남반부

사람들은 지금도 잊을수 없어 위외부군 한다.

아버이수령님께서 준엄한 전화의 나날 피땀을 흘려 조국에 바치려고 용감 떨쳐나선 의용군입대자들을 만나주시며 동무들이 인민의용군에 탄원한것은 조국과 인민을 위한 애국적장거로 된다고, 우리는 동무들의 애국적정신을 높이 평가한다고 하시곤 하셨다.

그후에도 아버지수령님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따뜻한 사랑과 믿음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인생의 행복을 꽃피우며 값높은 삶을 누리였다.

의용군출신 병사들의 영웅적위훈을 값없이 빛내주신 남조선청년들의 위대한 김정은원수님에 의해 변함없이 이어지고있다.

인제인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인민군대를 형제처럼, 집처럼 여기고 무작정 따라나섰던 13살의 남녘소년 정춘모, 아버지수령님의 초상화를 가슴에 소중히 품고 전선의 날까지 용감히 싸운 어제의 어린 병사가 삼가 올린 편지에 다음과 같은 가슴뜨거운 친필을 새겨주시었다.

《수령님의 영상사건을 심장 깊이 모시고 승리를 위해 싸운 로병들에게 소고한 경의와 전투적인사를 드립니다.》

건강하여 새세대들에게 고귀한 투쟁정신, 50년대 영웅정신을 그대로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김 정 은  
2013 8 14

정명 인생의 갈림길에서 주저없이 공화국의 품을 선택한 그 마음을 위훈으로, 애국으로 귀중히 내워주시는 위대한 아버지의 품이 있어 의용군출신 로병들의 삶은 길이 빛나는 것이다.

황 은 옥

사람들은 지금도 잊을수 없어 위외부군 한다.

아버이수령님께서 준엄한 전화의 나날 피땀을 흘려 조국에 바치려고 용감 떨쳐나선 의용군입대자들을 만나주시며 동무들이 인민의용군에 탄원한것은 조국과 인민을 위한 애국적장거로 된다고, 우리는 동무들의 애국적정신을 높이 평가한다고 하시곤 하셨다.

그후에도 아버지수령님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따뜻한 사랑과 믿음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인생의 행복을 꽃피우며 값높은 삶을 누리였다.

의용군출신 병사들의 영웅적위훈을 값없이 빛내주신 남조선청년들의 위대한 김정은원수님에 의해 변함없이 이어지고있다.

인제인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인민군대를 형제처럼, 집처럼 여기고 무작정 따라나섰던 13살의 남녘소년 정춘모, 아버지수령님의 초상화를 가슴에 소중히 품고 전선의 날까지 용감히 싸운 어제의 어린 병사가 삼가 올린 편지에 다음과 같은 가슴뜨거운 친필을 새겨주시었다.

《수령님의 영상사건을 심장 깊이 모시고 승리를 위해 싸운 로병들에게 소고한 경의와 전투적인사를 드립니다.》

건강하여 새세대들에게 고귀한 투쟁정신, 50년대 영웅정신을 그대로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김 정 은  
2013 8 14

정명 인생의 갈림길에서 주저없이 공화국의 품을 선택한 그 마음을 위훈으로, 애국으로 귀중히 내워주시는 위대한 아버지의 품이 있어 의용군출신 로병들의 삶은 길이 빛나는 것이다.

황 은 옥

## 장군님을 찾아가는 길

시 말씀을 잊지 못하고 밤마다 흐르는 밤하늘가를 바라보시다가 이 란리통에 김일성장군은 왜 찾아가는가 다시 물으시었다.

그 말씀에 로인은 대뜸 장군님을 찾아가야 살길이 열리고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지 않겠는가 말씀드리었다.

그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런데 로인님의 생각에는

잡잡한 밤 이 나라의 평범한 농민이 스스럼없이 한 말은 그대로 싸우는 조선인의 진정이고 신념이었다.

로인을 정경게 바라보시며 호탕하게 웃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지금 전체 인민이 우리 당과 공화국을 믿고 인민군대를 따라나서기때문에 우리는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한다고, 인민들은 당과 인민군대를 믿고 당파 인

말씀하시었다.

로인과 헤어지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지나오신 령길을 오래도록 뒤돌아보시다가 일군들에게 우리 인민은 다 이렇다고, 얼마나 좋은 농민인가고, 저런 인민을 가지고있기때문에 우리는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한다고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때를 잊지 못하시어 원수들이

이렇듯 미국에 의해 조선전쟁이 일어나자 온 나라를 《조국보위의 노래》를 높이 울리며 전선과 후방이 따로 없는 전민항쟁의 싸움터로 변하였으며 공화국인민은 그 가렬한 전장에서 피와 살도, 생명도 아낌없이 바쳐싸우는 불굴의 투사들로 되었다.

당시 조선전쟁을 종군한 오스트랄리아의 한 기자는 전체 인민이 성전에 떨쳐나선 이 경이적인 사실에 경탄하여 《이 기이한 전쟁》이라는 소책자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전쟁이 시작된 최초의 여섯 주사이에 120만명의 청년남녀들이 조선인민군 지원병부대 또는 빨찌산부대에 자원하였다. 그 가운데 40만명은 남에서 온 사람들이였다.》

정녕 위대한 수령님의 전투적호소를 심장으로 받들고 전국적범위에서 벌어진 전선탄원운동은 다시는 제국주의노예가 되는것을 원치 않는 조선인민의 민족자주정신의 분출이었으며 목숨보다 더 귀중한 나라와 민족의 자존권을 빼앗으려는 침략자들에게 대한 활화산같은 분노의 폭발이었다.

리 일 현

# 모든 힘을 전쟁승리를 위하여

지난 조국해방전쟁은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탁월한 령도를 따라 전체 조선인민이 침략자들을 반대하여 한사람같이 떨쳐나 결사의 항전을 벌인 전쟁이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력사적인 방송연설 《모든 힘을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에 접한 공화국의 방방곡곡에서 전선탄원사업이 힘있게 벌어졌다.

전쟁이 개시된지 이틀밖에 되지 않은 6월 27일 김일성종합대학 학생들이 결

기대회를 열고 그 자리에서 2 800여명의 남조선청년학생들이 전선출동을 결의함에 이어 불과 3~4일동안에 평양공업대학, 평양사범대학, 평양음악학교, 평양미술학교, 평양농업전문학교, 평양철도전문학교, 념변잡업전문학교 등 당시 온 나라의 수많은 대학, 전문학교, 초고급중학교 등에서 청년학생들의 거의 대부분이 전선으로 탄원하였다.

평양남도 순천군(당시)에서는 군내 전체 청년의 80%이상이

인민군대 입대를 탄원하였다.

당시 《로동신문》은 《74만 명의 애국청년들 북반부에서 전선출동을 탄원》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렇게 전하였다.

《공화국북반부청년들은 불타는 애국심으로 전선출동을 계속 탄원해나서고있다. 지난 6월말현재로 전선출동을 탄원한 청년들은 74만명을 돌파하였으며 그중에는 념성청년들도 23만여명의 다수에 달하고있다. 전선출동을 탄원하여 직접 총을 잡고 전

투에 참가할것을 열렬히 자원하고있는 이들, 피끓는 애국청년들은 김일성장군님께 드리는 탄원서들에서 조국방위를 위한 헌신적애국심과 원수들에 대한 적개심을 피력하였다.》

전선탄원운동에는 청년학생들뿐 아니라 로동자, 농민들을 비롯하여 온 나라의 남녀노소가 모두 떨쳐나선것으로 하여 영웅적인민군대의 승리적전진과 함께 그 수는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전선탄원의 소망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과 소년들, 부녀자들, 로인들은 또 그들대로 전선으로 나간 청장년들이 있던 자리를 차지하였으며 군기금원남운동을 적극 벌여

